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프로젝트
Korean UNESCO ESD Official Project

2019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



일시 2019년 9월 23일 (월) 12:00 -17:00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국제연합 유네스코
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프로젝트
Korean UNESCO ESD Official Project

2019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



일시 2019년 9월 23일 (월) 12:00 -17:00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헌장(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목 차

I . 행사 세부일정	4
II .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소개 및 2019년도 추진 현황 ...	5
III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분야 국제사회 최근 동향	8
IV . 강연 및 발표자료.....	17
V . 2019년도 ESD 신규 인증 프로젝트 소개	36

[부록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SDG4-교육2030

[부록 2]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담당자 연락처

행사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11:30-12:00	참가자 등록	
12:00-13:20	오찬	
13:20-13:30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3:30-13:40	사업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사업 추진 현황 • ESD 분야 국제사회 주요 동향 (오혜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13:40-14:40	기조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D 인증제 성과보고서 주요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이재영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환경교육센터장)
14:40-14:50	Q&A	
14:50-15:00	휴식	
15:00-16:00	ESD 공식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	<p>[신규 인증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청 - 아동친화도시 군산의 맘껏광장 프로젝트 (노창식 군산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계장) •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 산울림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김다령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단장/ 소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 (재)아름다운커피 - 아름다운 커피 공정무역교실 (김인화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부단장/ 소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p>[연장 인증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도시숲 미래, 앞산뒷산 네트워크 (김란희 광주광역시지속협 ESD위원회 위원/ 광주전남녹색연합 팀장) • (재)아름다운커피 - 아름다운 커피 공정무역교실 (백지현 (재)아름다운커피 홍보/교육캠페인팀 매니저)
16:00-16:30	패널토론 및 Q&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조우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본부장 •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선경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 이재영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환경교육센터장 •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란희 광주광역시지속협 ESD위원회 위원/ 광주전남녹색연합 팀장 - 이해란 (재)아름다운커피 홍보캠페인팀장 - 노창식 군산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계장 - 강성아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목적사업팀장
16:30-16:50	인증서/현판 수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신규 공식프로젝트 인증서/현판 수여 및 기념촬영
16:50-17:00	폐회	

II.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소개 및 2019년도 추진 현황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SD공식프로젝트 인증제 소개 및 2019년도 추진 현황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 ◎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Korean UNESCO ESD Official Project, 이하 'ESD 인증제')는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모델을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됨.
- ◎ 2011년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또는 ESD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 ESD 인증제 사업임.
- ◎ 이외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ESD 사업 및 활동과 함께, 국내 ESD 분야의 여러 활동 주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에서 ESD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인증제 사업도 단순히 ESD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양질의 프로젝트들을 인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상반기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관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성과보고서』(Korean UNESCO ESD Official Project Performance Report)를 발간함.
- ◎ ESD 인증제의 인증 심사 및 심의 과정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의 전문 위원회인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이하 'ESD한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국내 ESD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음. 본 심사평가단은 매년 인증 심사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선발·구성됨.
- ◎ 올해 ESD 인증제 심사 공모 및 심사 과정은 하기의 일정에 따라 진행됨.
 1. 신규 인증 신청서 접수(3-4월)
 2.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 심사평가단 심사(5-6월)
 3. 심사평가 결과 심의(제20차 ESD한국위원회 정기회의 / 7. 23) 및 최종 인증(7월)
- ◎ ESD 인증제는 크게 '공모'와 '추천'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3까지는 오로지 프로젝트 공모와 심사, 심의로만 공식프로젝트를 인증했으나, 2014년부터는 ESD 협력기관을 통한 추천제를 만들어, '공모'와 '추천' 두 가지 경로 모두를 통해 인증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ESD 확산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이 협력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음.
- ◎ ESD 인증제 사업에서의 인증은 기본 3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으며(2017. 8월 운영규정 개정), 인증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2년) 신청이 가능하되 신규와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연장 여부를 결정함. 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공식프로젝트는 인증이 만료되며, ESD 공식프로젝트로서의 활동에 다시 참여하기를 희망할 경우 향후 공모를 통해 재인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 올해는 총 16건의 응모 프로젝트 중 **11개가 신규 공식프로젝트로서 인증을 받게 됨**. 또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대상인 34개 기존 프로젝트들 가운데 **총 17개가 연장 승인을 받음**.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총 68개의 공식프로젝트(신규 및 연장 포함)가 활동 중임**.
- ◎ 최종 인증(또는 연장 승인)을 받은 공식프로젝트들에 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선 **인증서 및 현판 제공, 소액의 활동지원금 교부** 등이 있으며, 2016년부터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월간 소식지인 <유네스코뉴스>**에 ESD 공식프로젝트 소개 등 관련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고를 요청해 오고 있음.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에서 시상하고 있는 **ESD 국제상들에 대해 우수 프로젝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신규 프로젝트 대상 인증서 수여식을 비롯해, 공식프로젝트들 간 상호 교류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매년 **'유네스코 ESD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ESD 인증제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인증제 공모 및 심사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최신 동향(ESD for 2030 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교육'으로서의 ESD 등)과의 연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전기관적 접근법(whole-institutional approach)에 기반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자 함. 또한 공식프로젝트들의 활동 보고 내용 및 방식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는 등 **ESD 인증제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III.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분야 국제사회 최근 동향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분야 국제사회 최근 동향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제206차 집행이사회 의제: 2019년 이후의 ESD]

- ◎ ESD 국제 실천 프로그램(ESD GAP, 2015-2019)의 후속 조치로서 “2030년을 위한 ESD” (ESD for 2030, 2020-2030) 제안
 - 정식명칭: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향해(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achieving the SDGs)
 - 제74차 유엔 총회에서 공표,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 예정(2019년 개최)
- ◎ 준비과정
 - ‘GAP 중간평가, 심포지엄, 자문’이라는 3가지 작업을 중심으로 제안서 준비
 - 특히 올해 3차례에 걸쳐 범세계적 차원의 자문을 진행

1차	제3차 ESD GAP 파트너 네트워크 회의(4.25-28 /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1차 초안 소개 및 의견 수렴
2차	ESD의 미래에 관한 전문가 회의(7.9-10 / 태국 방콕)에서 2차 초안 소개 및 의견 수렴
3차	온라인 자문을 통해 3차 초안 소개 및 의견 수렴

- GAP의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ESD for 2030에 반영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우선 활동영역(Priority Action Areas) 가운데 4개 영역(정책, 교육 및 훈련, 교육가 및 커뮤니티)에서 목표 달성 • GAP 파트너 네트워크 내 상호 교류 및 지원 • (비)형식 교육 대상자(2,600만명)에게 ESD 실시, 관련 프로젝트 기획 • ESD 교육가 200만명 대상 훈련 및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자료 조정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우선 활동영역 파트너 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필요(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정부 주도 하의 ESD 가시성 증대 필요 • 기타: 관련 모금활동 및 연구에 대한 투자 증대, 모니터링/평가 필요

◎ ESD for 2030 개요

- 목표: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 - Education 2030)를 비롯한 SDGs 전체의 이행에 ESD가 기여
- 핵심전략

혁신적 실천 (transformative action)	지속가능발전의 증진을 위한 학습자별 인식 혁신 강화(복잡다단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개선 의지 함양, 비판적 사고 및 분석, 공감 및 연대 증진 등)
구조적 변화 (structural changes)	'지속불가능한 발전'의 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 및 해결 방안 마련(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간 균형, 각기 다른 일상생활 내 도시/주거/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등)
미래 기술 활용 (technological future)	지속가능발전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발전된 최신 기술 활용(녹색 기술, 첨단 기술과 관련된 민간/기업 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

▪ 이행 체계

- 1) **SDGs 지원**: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4.7 달성을 위해 ESD 관련 지식 및 가치 주입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SDGs 목표들 간 상호 연계/협력 강화(SDG-Education 2030 협의체 등 활용)
- 2) **구조**: GAP의 5개 우선 활동영역(정책, 교육/훈련, 교육가, 청년, 커뮤니티)은 유지하되, 이들 영역별 파트너 네트워크들을 단일화, 유네스코-일본 ESD상 유지
- 3) **회원국 활동**: GAP의 5개 활동영역별로 회원국 활동 강화
 - 정책: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범세계적/국가적 정책 내 ESD 통합
 - 교육/훈련: 교육 기관 및 커뮤니티 간 협력 강조 및 전기관적 접근 강화
 - 교육가: 변혁적 학습을 위한 교육가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청년: 지속가능성 관련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청년들의 참여 독려
 - 커뮤니티: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중심지인 커뮤니티들 간 연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
- 4) **유네스코 활동**: ESD 이행 가이드라인 구축 및 국가 단위 지원, 정부/기부자/커뮤니티에 집중, 모니터링 등

◎ 예산: 유네스코 정규 프로그램 및 예산으로 ESD for 2030을 이행하고자 하나, 회원국들의 적극적/자발적 기여를 통한 다양한 출처의 비정규예산 확보 필요

[제4차 GAP 파트너 회의 주요 결과]

- ◎ 회의명: 제4차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 실천 프로그램 핵심 파트너 회의(4th ESD GAP Partner Meeting)
- ◎ 기간/장소: 2019년 7월 4-5일 / 베트남 하노이
- ◎ 주관: 유네스코 본부(협력: 베트남 교육훈련부, 유네스코베트남위원회)
- ◎ 목적: ESD GAP의 마무리를 위한 그간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짚어보고, 차기 국제실천프로그램인 ESD for 2030의 내용 및 이행 계획을 공유하면서 참가자들의 관련 피드백 수렴
- ◎ 주요 프로그램: 전체회의, 실천영역별 토의 및 결과 발표

◎ 주요결과

▪ ESD GAP 리뷰

- 유네스코가 GAP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발간하는 보고서 시리즈의 두 번째 판인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 in action - Global Action Programme (GAP) Key Partners’ report (2015-2018)”**의 주요 결과 공유 및 검토

[GAP 이행 현황 보고서 시리즈]

△ 1차 보고서(2015-2016년도 활동 결과 / 2017년 발간)

△ 2차 보고서(2015-2018년도 활동 결과 / 2019년 발간)

△ 3차 보고서(2015-2019년도 활동 결과 / 2020년 발간 예정)

⇒ 상기 보고서들은 GAP의 5가지 우선순위 실천 영역(정책 반영, 학습 및 훈련 환경 혁신, 교육자, 청년, 지역사회)을 반영해, 실천 영역별 2개씩 총 10개의 지표(indicator)를 활용해 GAP의 성과를 측정함.

⇒ **GAP의 10가지 성과 측정 지표**

성과 측정 지표	관련 실천 영역
① Strategic policy documents supported	정책 반영(Advancing Policy)
② Programmes supporting ESD policy development	
③ Learning institutions supported	학습 및 훈련 환경 혁신 (Transforming learning and training environments)
④ Learners directly involved in GAP Key Partner’s activities	
⑤ Educators trained by GAP Key Partners	교육자 (Building capacities of educators and trainers)
⑥ Teacher-training institutions supported by GAP Key Partners	
⑦ Youth leaders supported by GAP Key Partners	청년 (Empowering and mobilizing youth)
⑧ Youth leaders trained as trainers	
⑨ Organizations conducting ESD activities with local authorities and GAP Key Partners’ support	지역사회 (Accelerating sustainable solutions at local level)
⑩ ESD programmes established by local authorities with GAP Key Partners’ support	

- 2번째 GAP 현황 보고서 내 2015-2018년도 GAP 이행 현황 결과에 따르면, 지표 ⑦과 ⑧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 있어 예상 목표치보다 높게 달성됨. 지표 ⑦의 경우 목표치와 동일하게 달성되고 지표 ⑧은 지표들 중 유일하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이들 지표에 해당되는 '청년' 영역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본 보고서는 향후 도전과제로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함.
 - ① ESD에 긍정적인 정책 환경 보장(Ensure a favourable policy environment)
 - ② 파트너십 접근법 활용(Harness the partnership approach)
 - ③ 비교육 분야 이해관계자 대상 접근(Reach out to non-education stakeholders)
 - ④ 혁신적인 교육 접근법 확대(Expand transformative education approaches)
- ESD GAP 리뷰를 위한 GAP의 5가지 실천 영역별로 참가자들 간에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 도전과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이후 유네스코 본부 측은 하기와 같이 각 영역별 활동을 위한 권고사항(specific recommendations)을 제시함.

[PN 1] 다양한 이해관계자

Establish/strengthen multi-stakeholder inter-ministerial, inter-sectoral platforms including su stainable development sectors (aligh policy and practice)

[PN 2] 전기관적 접근

Use **whole institution approach** as a powerful tool

[PN 3] 교사 연수

Position **teacher training** as part of whole system reorientation (curriculum, assessment, etc) towards ESD

[PN 4] GAP의 지속적인 달성

Ensure a certain level of continuity of GAP achievements

[PN 5]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이행

Provide clear guidance on realistic tangible actions at the local level

■ ESD for 2030 소개

- 유네스코 본부 측에서 Post-GAP Programme으로서 2020-2030년 간 이행하게 될 ESD for 2030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향후 이행 체계에 대한 초안을 제시하고, 하기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참가자들과 토의함.

- ① How to implement nationwide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 ② How to facilitate networking of key partners?
- ③ Monitoring and evaluation, communication and advocacy, evidence-based approach and other necessary considerations

- GAP과의 차이점

- ① **지속성(continuity)**
 - △ GAP의 5가지 실천 영역 유지
 - △ 글로벌 네트워크
- ② **새로운/개선된 강조점(new/renewed emphases)**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ESD의 기여
 - △ 회원국별 이니셔티브 구축
 - △ 증거 수집, 과정/트렌드/최신발전 현황 모니터링

- 회원국의 역할

- △ 5개 실천 영역과 연계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 구축
- △ ESD for 2030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애드보커시 이행 강화

- 유네스코의 역할

-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ESD for 2030 이니셔티브 (**NAMSI**, Nationwide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기반한 이니셔티브 구축 필수
 - ⇒ 국가 이니셔티브는 (비)정부, 또는 두 가지 성격 모두를 지닌 주체가 구축 가능
 - ⇒ 이니셔티브 구축·운영에 있어 국가별로 재원 마련(To be self-financed by the Member States), 유네스코의 재원은 제한적
 - ⇒ 국가별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한 대륙별 회의(regional information meeting, 2020-2021년) 개최 예정
- △ 핵심 파트너들 간 네트워킹(**NKEP**, Networking of key partners)
 - ⇒ 전 세계적으로 선발된 유관 분야 파트너들 간 네트워킹
 - ⇒ 2년 단위 네트워크 회의 개최

△ 모니터링(Monitoring)

- 향후 ESD for 2030 추진계획(안)

시기	세부내용	비고
2020년	런칭을 위한 유네스코 회의	
2020-2021년	대륙별 준비 회의	제1회 국제 네트워크 회의(2021년)
2022-2024년	ESD for 2030 이행	제2회 국제 네트워크 회의(2023년)
2025년	이행 중간 점검	
2026-2029년	이행 강화	제4회 국제 네트워크 회의(2027년) 제5회 국제 네트워크 회의(2029년)
2030년	이행 최종 점검	

[기타사항]

◎ Post-GAP 실천 프로그램(ESD for 2030, 2020-2030년)

- 20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통과, 40차 유네스코 총회 및 74차 유엔 총회에서 최종 승인 예정, 관련 로드맵(국가 단위 이니셔티브 방식으로 진행 등) 확정 예정

◎ ESD for 2030 런칭을 위한 국제회의(2020. 6. 2-4 / 독일 베를린): 독일 정부 주최

[참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실천프로그램

Global Action Programme on ESD (GAP) / 2015-2019년

1. 배경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 2005-2014년)'은 1) ESD에 대한 인식 증진, 2) 세계적인 이해관계자들의 동원, 3) 국제 협력을 위한 플랫폼 형성, 4) 정책에의 반영, 5) 국가수준의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음.
- 그러나 1) ESD 활동이 제한된 예산으로 고정된 기간에만 진행되고, 2) ESD 정책과 실천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으며, 3) ESD가 여전히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주류로 통합되지 못했다는 것이 도전 과제로 남아 있음.
- ESD의 잠재성을 완전히 발현시키고, 모두에게 지속가능발전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며, DESD의 후속 조치로서 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은 이러한 행동을 도모하고자 고안됨.

※ GAP은 제37차 유네스코 총회(2013년)와 제69차 유엔 총회(2014년)에서 통과됨

2. 목표

-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진보의 가속화를 위한 모든 영역과 수준의 교육 및 학습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과 증진
 - 모두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가치·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습의 재정향
 - 모든 의제/프로그램/활동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교육 및 학습 강화

3. 5개 우선순위 실천 영역

- 정책 반영
 -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국가적 정책에 ESD를 포함시킴
 - 교육과정 ESD 통합, 국가학습표준평가에 ESD 반영, 국제 교육목표에 ESD 포함
 - 국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된 정책에 ESD 통합
 - 양자간/다자간 개발 협력 프레임워크에 ESD 요소 통합
- 학습 및 훈련 환경 혁신
 - 학습과 훈련의 환경에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통합함
 - 학습과 훈련 환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하는 비전과 계획을 세움
 - 기관장과 행정가는 ESD에 대한 전 기관 접근법을 구상
 - 전기관적 접근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교육자
 - 교육자, 훈련가, 기타 변화 주체가 ESD 학습의 촉진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형식/무형식/비형식교육, 기술직업교육훈련의 예비교사 및 현직 교사 교육과 훈련과정 및 대학 교직원 훈련/의사결정자, 공무원, 민간부문 관계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에 ESD를 통합

□ 청소년

- ESD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지지
 - ESD를 위한 온라인 학습, 모바일 러닝 등 무형식/비형식교육 기회 강화
 - 청소년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참여적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지역 사회

- ESD를 통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해결책 구상 가속화
 - 지속가능발전 학습을 위한 다자간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발전
 - 지역 당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4. 실행 구조

- 참여 조건: ESD 관계자들은 모든 차원(국제, 지역, 국가, 지역사회 등)의 활동/프로젝트/프로그램을 통해 GAP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음
 - ESD 관계자: 회원국 정부,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미디어, 연구자 집단, 교육 관련 기관, 학습 관련 기타 기관, 교사 및 학습자 개인, 정부간 기구 등
- 국제 사무국: 유네스코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반적인 조직, 평가 및 정보 처리
 - ※ 국제 사무국을 유네스코 본부에 두지만 전체적인 이행은 분권화해 진행
- 핵심 파트너 네트워크: 5개 우선순위 실천 영역 중 1개 이상에 기여하고, 타 관계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관계자들로 핵심 파트너 구성
- 국별 연락책: 회원국마다 해당 국가의 네트워크를 조정할 연락책을 설정
- ESD 국제 포럼: ESD 관계자 간 국제 플랫폼으로서 주기적으로 결집해 정보 및 경험 교환, 국제적 진행 과정 모니터링
- 모니터링: GAP 모니터링을 위한 메커니즘(각 우선순위 실천 영역별 구체적인 타깃, 벤치마킹, 영향평가 등)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시행
- 출범: 유네스코 ESD 세계회의에서 우선적으로 5년 기간(2015-2019년)으로 출범

IV. 강연 및 발표자료

<기조강연>

- 이재영
(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국가환경교육센터장)

<우수프로젝트 발표>

- [신규1] 노창식(군산시청)
- [신규2] 김다령, 김인화(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 [연장1] 김란희(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연장2] 백지현(재단법인 아름다운커피)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성과보고서 연구 요약

이재영(유네스코 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환경교육센터장)

2011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해 온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이하 ESD 인증제)는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증진하고, 다양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 ESD) 모델을 공유·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SD 인증제는 ESD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와 연계·추진되고 있는 ESD 관련 사업 및 활동을 발굴하고, ESD 분야 우수 사례들을 널리 홍보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ESD 인증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내에서 추진한 여러 ESD 사업들 가운데 국내 ESD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19년 현재 ESD 인증제 사업이 9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단순히 ESD의 인식 증진 및 영역 확장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 ESD의 가치와 의의를 적확하게 반영한 프로젝트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다 많이 양산·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9년간 전체 인증 신청된 프로젝트 213개 가운데 77개가 인증을 받았고(36.2%), 조건부 인증이 19개(8.9%)에 달해 최종 인증 프로젝트 수는 총 96개(45.1%)였다. 이러한 수치는 인증 신청한 프로젝트의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증제를 도입한 첫 해인 2011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59개의 프로젝트가 신청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연 1회 심사를 진행해 프로젝트를 인증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심사 대상 프로젝트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신청 프로젝트 수를 늘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과거에 비해 인증률은 높아져 매년 인증되는 프로젝트 수는 10개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2개 이상에 걸쳐 있을 수 있는데, 인증 신청한 프로젝트의 주제는 '환경 및 에너지'가 81개(25.4%)로 가장 많았고, 역시 넓은 의미의 환경 관련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도 31개(9.7%)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지역 개발', '평화와 인권', '문화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성 평등'이 7개(2.2%)로 가장 적었으며, '빈곤 감소'(16개, 5.0%) 및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28개, 8.8%)와 같은 경제 관련 주제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향후에는 공식프로젝트의 주제를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연동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3년 4월에 개최된 제8차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이하 ESD한국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ESD 인증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년)이 종료됨에 따라 인증제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 국내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 경험에 대한 공유 요청이 있었다는 점, 인증 신청 프로그램 간 수준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 인증제 개선의 추진 배경이 되었다. 2013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프로젝트인증제 운영규정」(이하 ESD 인증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협력기관 선정 기반을 마련한 이후, ESD한국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을 협력기관으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이 ESD한국위원회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경영 방침에 ESD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과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증 신청 프로젝트들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ESD 공식프로젝트로서의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프로젝트 추진 대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및 주민, 청소년 등의 주체적·지속적 참여를 전제로 하거나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 대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내용이나 접근 방법의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는 유아 대상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강의식(강좌형) 교육 치중, 일회성 행사성 프로젝트 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향후 ESD 인증제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추진 전략과의 연동을 위한 방안으로서 본 보고서는 5가지 영역 내 22개의 전략을 제안했다. 5가지 영역으로는 △ 프로젝트 단위에서 플랫폼 구축으로의 확대, △ 프로젝트의 통합성 강화 전략 도입, △ ESD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ESD 전문 지도자의 양성 및 활용, △ 프로젝트 인증 기준 및 절차 개선이 제시되었다. 22개 전략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 ESD 네트워크 창립, △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메타 프로젝트 추진, △ 지자체의 민관 거버넌스 정책과 연계, △ 온라인 ESD 강좌 및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 지자체 또는 기관 차원의 인증 방식 도입을 들 수 있다.

'지속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앙리 베르그송이 시간의 연속적 흐름(지속)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단어는 'duration'이었다. 유명 건전지 브랜드명에도 포함된 이 단어는 흔히 '지속 시간'으로 번역된다. 특정 존재가 시간의 흐름을 가로질러 소멸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연구진은 그 힘이 존재(being)와 생성(becoming)의 창조적 통일 또는 역동적 균형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존재와 생성의 창조적 통일이라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물질, 생물, 기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제도나 조직과 같은 사회적 시스템도 자기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취약하거나, 반대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스스로 변화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창발성이 부족하면 소멸되기는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남북 평화,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난민, 성평등, 생명 윤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복잡하게 뒤섞여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각기 분리해서 바라본다면 해결은커녕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ESD 인증제가 그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새롭게 진화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 통합적이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 학습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아동친화도시 군산의 맘껏광장 프로젝트

노창식(군산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계장)

1. 추진배경

성인으로 국한되었던 시민의 범위가 아동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아동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과거 성인들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되었던 아동은 이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아동이 우수한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사회발전에 책임을 지는 사회구성원이자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써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광장은 예로부터 시민이 모이는 집회 광장, 교회 앞의 종교 광장, 시장이 열리는 시장 광장, 오벨리스크나 조각이 세워진 기념 광장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로마의 광장을 일컫는 포룸이 공개 토론회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 도시에서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도시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존재했다. 하지만 그동안 성인 중심의 사고와 활동의 상징적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던 만큼 대한민국 최초로 기획된 아동권리광장 조성을 통해 아동도 소중한 인격체이며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성인들의 인식 개선과 아동 스스로 자기 권리 확산 이행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다.

2. 추진방침

2016년 10월10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우리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아동의 참여체계'를 장려하고, 전문기관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이 자유롭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시는 광장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동 참여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해 실제 시설을 이용하게 될 아동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광장 조성이나 시설 관리 차원이 아니라 조성 후에도 아동들의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지속적인 참여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3. 추진내용

군산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0백만원, 군산시 455백만원등 총65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공주사범대, 조선대학교 전문 교수들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아동의 이용이 활발한 시립도서관 옆에 2008년 조성되어 시설 보수가 필요했던 수송근린공원을 리모델링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광장의 주인공인 아동들이 참여하는 워크숍등을 통해 자아실현을 의미하는 거울 설치, 토론·프리마켓 등 청소년 교류를 위한 카페테리아 시설물 설치,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군산 역사의 길 조성, 계층별 휴식과 놀이가 가능한 다양한 조경 및 조형 쉼터 등이 포함된 한국최초의 아동권리 광장인 '맘껏광장' 설계안을 개발하고 조성하였다. 조성 후에는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분과의 추천을 받아 10여명의 청소년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들이 직접 운영주체가 되었다

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공주사범대학교, 조선대학교, 군산시가 참여하는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 한국 최초의 아동권리광장 조성을 위한 로드맵 구성

② 아동 참여 디자인 워크숍

일시	대상	인원	내용
5월 27일(토)	어린이청소년의회	60명	-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건의 설문조사
5월 28일(일) 13:00~14:30	시립도서관 워크숍 참가자	9명	- 맘껏 광장 조성 놀이마당 취지 소개 - New, More, Better 조사
6월 4일(일) 13:00~14:40	시립도서관 워크숍 참가자	13명	- 맘껏 광장 조성 놀이마당 - 공원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워크샵(1)
6월 11일(일) 13:00~14:40	시립도서관 워크숍 참가자	11명	- 맘껏 광장 조성 놀이마당 (나를 표현하기)
6월 24일 09:00~12:00	어린이청소년의회	45명	- 조성 아이디어 검토회의 - 검토하여 수정의견 제안하기

4. 강점과 중점 고려사항

① 환경생태적 측면

2008년 조성되어 노후 되고 수리가 필요했던 있었던 공원을 리모델링 형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 시의회등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예산 확보는 물론 광장의 생태적,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광장설계를 위한 설문조사 및 면담과정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담배연기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자는 요구가 많아서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광장 내에 설치된 카페의 지붕 또는 근처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여 광장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② 경제적 측면

경제적 약자들이 정보데이터 빈곤에 빠질 우려가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도 마찬가지여서, 광장에서는 모든 방문객이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맘껏광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토론과 학습의 마당으로써 우리시에서 광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와 동시에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의회가 후원을 모집하거나 청소년정책과 연계하여 광장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재경군산시향우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상징적 장소로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다룬다.

③ 사회문화적 측면

맘껏광장은 민주시민교육과 연결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써, 그들을 단지 돌봄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하며, 이를 우리시의 정치인을 포함한 성인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설계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우리시에 설치된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와 협의하고, 전문가 및 관계된 어른들이 이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광장의 벽면과 바다 등에 군산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부심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5. 기대효과

① 아동의 참여

광장 조성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시설물 인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청소년 단체 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 당사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분석, 반영함으로써 참여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직접 제안 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분과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 10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행정이 관여할 경우 참여가 제한되고 자율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② 아동 관련 기관의 협력과 협업

NGO단체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교육기관인 군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공주사범대학교, 조선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이 협업을 통해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계획, 시행, 성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다. 참여 아동은 자신들의 주요 이용시설인 광장과 놀이터 조성에 대한 성인들의 협업과 협력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기관이 다른 관계자들의 의견 발표, 토론, 결론의 과정을 체득하게 되었다.

③ 아동 권리에 대한 홍보

아동들은 자신들이 작명한 맘껏광장에서 '청소년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주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의 장을 마련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시민에 대해 공부하고 민주시민의 역할과 의사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며,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SNS 메신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는 물론 유관단체(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학원연합회 등)에 설문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아동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나아가 공유했던 토론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맘껏광장에 공연·전시·자유발언·캠페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오픈스테이지를 구성하여 광장에 모인 아동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있다. 퍼포먼스가 끝나면 팀원들은 결과에 대해 얘기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방법을 제시하며 추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④ 효율적인 예산 확보 및 활용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맘껏광장은 지역 내 후원자(향우회장 5백만원), 시의원(비품, 용품)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예산 확보가 일반적인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⑤ 아동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수행

맘껏광장은 아동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됨에 따라 스스로 후원처를 개발하고 사업비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아동 스스로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성과분석

성공요인

① 아동, 아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사랑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의 부재와 단조로운 행정 추진등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오랜 시간 아동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NGO단체, 전문가 그룹, 대학교등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포럼, 토론회 참석을 통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동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에게 장애가 되는 부분의 해소와 아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의 확장을 위한 고민이 선행되었으며 이러한 고민과 관심을 이해한 단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기존 방식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정책과 아이디어를 생산하게 되었다.

②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참여와 협업을 통해 추진

맘껏 광장 조성을 위해 수요자인 아동, 공급자인 우리시와 전문가인 NGO단체와 대학교의 참여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전문가 중재를 통해 명확하게 공급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젝트가 되었다.

③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권역별 조성과 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

새로운 시설의 조성은 기관간 협업이 불가능 하거나 사업비 과다로 효과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은 시설 노후와 보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개선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고 사업비 부분에서도 부담이 적어 효율성이 높았다. 특히, 맘껏광장은 시립도서관 공원내 조성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한계점

① 시간과 예산의 한계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기관별 인사이동, 행사등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느려지거나 단계별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단점이 있었고 기관별 예산의 혼용이 어려워 사업별 분담 추진후 관리 기관을 지정하는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②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 곤란

광장에 CCTV, 안전바등을 설치하는등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광장내 맘껏 카페에 대한 성인은 물론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에도 불구하고 여름과 겨울철 난방 시설, 전기 승압등 다양한 요구사항 해소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③ 아동 친화적인 유지 관리 곤란

광장 특성상 야외 공개 장소인 만큼 반려동물의 출입, 성인들의 무분별한 활용등으로 인해 아동 중심의 활용과 유지 관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

새로운 개선 방법

①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기획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협의를 통해 공정별, 시기별로 동시 추진, 기관별 추진과 예산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실행함으로써 시간과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②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성 통과 여부등을 사전 검토후 설계 반영으로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 부작용을 해소하고 안전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등의 행정 절차 이행 동시 추진으로 안전성 확보 필요

③ 아동친화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확보 추진

광장 조성시 기획단계에서 시설 인근의 관계자, 자원봉사자등이 참여하는 유지 관리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협조 체제 구축 필요

도시숲의 미래, 앞산뒷산 네트워크

김란희(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SD위원/광주전남녹색연합 팀장)

I. 도시숲, 광주 앞산뒷산 네트워크의 태동 배경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 확장과 인구 집중으로 많은 숲과 습지가 사라지면서 도시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숲은 물을 품는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폭염과 미세먼지, 열섬화, 대기오염, 지하수위의 하강 등으로 급속한 환경변화를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 지역 내 건물이 들어있지 않는 공간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녹지를 의미하며, 도시림, 도시숲, 공원·녹지 등이 혼용 사용되고 있다.

녹지가 부족하고 고밀화된 도시에서 도시숲은 지하수 보전, 토양환경보전, 야생동물 서식처 등 생태계 보전 기능은 물론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 도시환경 보전 기능과 경관·휴양, 역사·문화, 재난방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여가의 증진, 정서함양 등 광범위한 기능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를 시행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미집행공원이라면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많은 도시숲과 도시공원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광주 앞산뒷산 네트워크'는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노력으로, 개발과 성장 위주의 시대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2002년 광주전남녹색연합은 '도심 속의 녹지를 포함한 숲 보전활동과 교육활동'을 중점 사업으로 채택하고 광주지역 최초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진행(25명 수료)했다. 숲 해설가 수료와 함께 지속적인 모임 운영은 앞산뒷산 지킴이가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4년에는 '마을뒷산지킴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외공원 입양하였으며, 다양한 생태 아카데미를 통해 사직공원, 한새봉, 삼각산, 봉산, 군왕봉, 어등산 등 여러 앞산뒷산 지킴이들이 탄생하였다. 이들은 도시숲 보전을 위해 네트워크를 이루며 도시숲 아카데미, 생태지도 및 자료 발간, 박람회, 도시숲 대표종 찾기, 정책토론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사례를 통해 앞산뒷산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도시숲 앞산뒷산 네트워크 활동

광주 도시 공원 시민교육

앞산뒷산 네트워크는 매년 시민들과 도시숲을 탐방하며 도심 속 숲의 역할과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이는 언론과 SNS, 자료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데 노력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광주도시공원 6개소(발산, 봉주, 월산, 화정, 운암산, 우산공원)를 탐방했다. 강사로 김영선 광주전남녹색연합 상임대표, 김길수 푸른길 이사장, 편득중 문화관광해설가 등 6명이 도움을 주었으며,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한새봉숲사랑이,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광주생명의숲, 대학생기자단 등 앞산뒷산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언론인, 시민기자, 사진작가 등이 참여했으며, 시민들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서기 위해 글쓰기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하는 시민들은 양질의 정보를 사진과 글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공유했으며, 매회 탐방내용은 협의회 블로그에도 소개했다. 언론보도, 도시공원시민탐방보고서 바람소리, 숲길에 머물다(ISBN 979-11-88297-09-2)를 발간, 배포하였다.

도심권 생태체험관광

2015년부터 광주 중앙공원(풍암호수공원 일대), 한새봉(북구 일곡동) 푸른길공원(푸른길 구기차길), 사직공원, 무등산 평촌마을, 장록습지 등을 중심으로 생태체험관광 사업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5개권역의 생태적 공간을 관광과 접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심 속 녹지공간의 아름다움을 소개했다. 각각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역할, 조성배경 등을 해설과 함께 풀어냈으며, 어린이 참여자들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한새봉두레, (사)푸른길, 사직공원 문화해설사,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등에서 교육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광주시가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생태관광 조례 제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확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생태문화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생태교육과 숲 정화활동 등 우리동네 앞산뒷산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마을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문화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사례① 백석산 떼굴떼굴탐험대 숲체험활동 프로그램(2016년~계속)
: 서구 금호동, 도시섬이 되어버린 백석산을 지키기 위한 학생·학부모 자발적 활동으로 환경, 역사, 문화 등 마을의 보물을 찾아가는 교육
- 사례② 한새봉 지키기, 한새봉 문화공간으로서 역할(2009년~계속)
: 2009년 한새봉 아래 개구리논을 시작으로 생태적 가치 인정(지속가능발전대상, 물환경 대상 등), 한새봉-삼각산 관통 북부순환도로 반대운동, 2017년부터 도시농부장터 대표브랜드 발굴 노력을 시작으로 현재 '한새봉 개굴장'으로 자리매김
- 사례③ 광주생명의숲 노거수탐방 및 노거수 생태지도 제작
- 사례④ 구와산클럽(2017~2018년)
: 구와산 자락 6~7개 아파트 어르신 20여명 참여하는 구와산 정화활동으로, 70~80대 높은 연령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슈가 되기도 함
- 사례⑤ 화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의 약속, 미조성 근린공원가꾸기' (2018년~계속)
: 미조성근린공원인 화정공원은 불법주정차 등으로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으나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공원가꾸기,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화분 가꾸기, 가랜드 만들기, 포토존 조성 등을 진행하며 공원다움을 찾아가고 있음

Ⅲ. 도시숲과 ESD

시민사회의 역량만큼 시민이 성숙한다. 광주는 2017년부터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유관기관, 학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지역사회 ESD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산뒷산 네트워크의 활동은 최근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서 도시숲을 풀어내며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도시숲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ESD와 연계한 교육 역량강화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기존의 전달식 환경교육을 탈피하고 교육 참여자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광주 ESD교원연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시민사회가 가진 교육 전달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ESD교원연구회는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다가치그린 동네 만들기,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교육, 국제기후환경센터 기후변화 교육(2018년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빛가람지킴이 물순환 교육(2019년 환경부 우수 프로그램 지정) 컨설팅 및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반면, 시민사회는 교사의 정보력, 전문성 부족을 메꿔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ESD네트워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 강사단의 역량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시민사회 강사단 중 2017년 ESD강사단 46명을 양성하였고, 2018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ESD와 SDGs 이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컨설팅, 소방안전교육, 성평등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지역사회 수요처의 만족도를 높여 교육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피치 교육, 미디어트레이닝을 실시했다. 스피치 전문강사와 보이스, 태도, 발성, 복장, 카메라 테스트 등의 교육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수강생은 10월에 있을 ESD박람회에 참여하여 교육 역량을 풀어낼 예정이다.

제3회 ESD박람회

올해로 3회째를 맞는 ESD박람회는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유관기관, 행정, 학교관계자, 지속가능발전교육 시범학교 4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년 동안 준비한 우리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마을분야의 교육을 풀어내는 장이다. 과거 앞산뒷산 박람회는 ESD라는 큰 틀 안에서 도시숲의 가치를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함께 전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7년 ESD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첫 행사는, 우리지역의 교육을 작게나마 한데 모아 모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기대 이상의 많은 네트워크가 참여하였다. 이는 향후 행사 규모를 확대하여 ESD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작년부터 40여개의 네트워크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프로그램 완성도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시민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7. 10. 27 : 제1회 ESD한마당 "ESD : 우리마을 패키지투어"
- 2018. 10. 20 : 제2회 ESD박람회 "칙칙폭폭! 행복을 찾아가는 ESD오감여행"
- 2019. 10. 19 : 제3회 ESD박람회 "쓰레기 Zero 여행!"

맺으며

2017년 UN SDGs가 발표되면서 최근에서야 '지역사회 연계형 ESD'가 주목받고 있다. SDGs를 실천하는 핵심동력으로서 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광주는 2014년부터 지역사회 연계형 ESD를 표방해오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우리 마을의 도시숲을 지키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보와 지식,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다. 상대가 내 방식대로 일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길고 답답한 과정이 될 수 있으나 네트워크가 가진 힘은 때론 상상으로는 불가능하던 것을 현실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 SDGs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첫 걸음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다.

산울림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김다령(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단장 소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인화(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부단장 소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 추진배경 및 목적

마을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영위되는 장으로서 일상생활의 토대였고, 개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사람을 이해하는 주요 정보제공 및 소통의 공간이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지리적·물리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성이 갖는 의미는 다소 약화되고,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이 많이 무너졌다.

또한, 주택난, 환경오염, 공간적 분리와 교통대란 등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민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행정안전부, 2017)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첫걸음

전국 최초로 구를 폐지한 부천은 원도심인 오정구와 원미구, 신도심인 소사구 3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었다. 특히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원도심의 원미구 역곡동은 노후화된 도시의 환경으로 주택밀집과 동시에 유흥가가 즐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저해되는 유해환경에 노출 정도가 높아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위험요소가 많이 있었다.

지역 내 일어나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만큼 청소년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에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여건과 문화 등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청소년 스스로 문제점에 대한 자각을 통해 직접 마을을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 내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들을 직접 청소년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을 만들고자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 주도의 자치활동 기구인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이하 마중물) 시작되었다.

‘마중물’은 ‘마을공동체’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지역사회 변화프로그램을 실천과제로 삼아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세부 단위의 목적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마을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사업내용

○ 소외 받는 이 없이 함께 동행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직접 마을 속에서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마을의 청소년의 소리를 듣기위해 마중물은 거주지, 학교 등 역곡 지역에 관련된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마을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주제에 따른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의 배경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마을이해 교육과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을 진행하고, 문제인식(현안 발굴)→사례 분석→대안 찾기→실행하기→확산하기 총 5단계에 따라 참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지역 내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지역사회 개선실천활동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는 '마중물'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위해 직접 마을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과 거주·문화 등의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해당 연도의 중점 사안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2013~2018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활동 주제 및 내용]

연도	주제	추진 내용
2013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 유해환경개선 벽화그리기 ● 거리정화활동
2014	깨끗한 마을 만들기	● 깜짝반짝 프로젝트 ● 다행이 쓰레기통 설치
2015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 바른길로 인도해드립니다 ● 쓰레기통 설치 확대
2016	즐거운 마을 만들기	● 마중물이 만난 사람들 ● 골목을 밝히는 마중물 ● 길거리 스케치북
2017	친절한 마을 만들기	● 아동안전지킴이집 안내 캠페인 활동 ● 오라이 시리즈 ● 찾아가는 마을 놀이터
2018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 우리 마을 달력 만들기 ● USPL(Ultra Sun Power Light) ● 찾아가는 마을 북카페

○ 지속가능한 활동 추진

1992년 유엔 환경 개발회의에서 채택한 'Agenda 21'에서 채택한 내용처럼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데 교육이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수행의 필요성 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원칙을 적용하여 실천하는 소양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활동은 (2015-2016)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목표체계를 재구조화한 결과, 마중물의 활동이 유의미한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변화활동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SDGs와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활동의 연관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공동체 실현**

**YOUTHS
FOR
SDGs**

-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변화하기]**
- 유해환경(우범지역) 벽화 그리기
 - 바른길을 안내해 드립니다(대중교통 안내)
 - 오라이 시리즈(출서기 등 공공질서)
 - 안전 나침반(지역 내 청소년 안전환경 조성)
 - 찾아가는 시리즈(마을 놀이터, 북카페 등)
 - 우리 마을 달력 만들기(주민 소통)



- [소외 받는이 없이 함께 출발하기]**
- 공정한 참가자 선발과정
 - 활동의 참여 기회, 권리 보장
 - 활동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전문 지도자 배치

- [우리가 만드는 깨끗한 환경]**
- 슈렉스(상습 투기 지역 쓰레기통 설치)
 - 감적반락 프로젝트(거리정화활동)
 - USPL(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설치)

○ 마을과 함께하는 활동

‘마중물’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지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힘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 힘을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와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마중물’ 활동을 알리는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내 마을활동가 및 상인회 등과 연대하고, 마을활동에 관심이 있는 타 자치조직들과의 관계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내용을 공유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활동은 혼자서 아닌 우리 모두의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과 함께하는 사람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마을활동가 모임

○ 청소년의 주체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문제를 파악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기획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식을 키우고 문제해결능력과 시민성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주체로서 역할을 가지고 지역 속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였다.

□ 평가 및 과제

○ '주체성'을 가진 청소년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

"내가 지역을 살며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문제점들을 내가 직접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마중물 단원 김승민

"처음에는 마을활동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가져졌고, 개선실천활동을 통해 마을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 뭔가 뿌듯하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 마중물 단원 김다령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 반영되었을 때, 그 때부터 활동이 재미있어진 것 같아요. 우와, 내 이야기가 반영됐어. 생각하며 그 반영된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더 열심히 참여하고자 마음도 먹었고, 그 만큼 책임감도 강해졌구요."

- 마중물 단원 김수아

"봉사시간을 얻기 위한 활동이 아닌, 정말 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활동이 아닌,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니까요."

- 마중물 단원 오근혜

위의 내용들은 '마중물'단원들의 면담 중 일부의 내용들이다. 활동 시작 전과 후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각자의 활동에 대한 참가 동기, 활동 소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마중물'단원들은 모두 마중물 활동이 쉬운 활동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역 내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바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마을의 의미와 공동체의식 회복,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은 참여자세로 활동을 진행해온 결과 지역 내 청소년 참여활동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미래사회 실현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청소년의 시각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과 마을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하며, 처음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같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교실

백지현(재단법인 아름다운커피 홍보/교육캠페인팀 매니저)

「공정무역교실」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공식프로젝트로 인증을 받은 지 올해로 7년차 다. 아름다운커피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공정무역교실」을 운영해왔다. 「공정무역교실」은 청소년들이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스스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실천형'세계시민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7년 동안 「공정무역교실」프로그램을 통해 공정무역을 학습하고 실천한 청소년은 40,000여명에 달한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참여학교	23	59	62	131	155	178	117	725개교
청소년	216	4,921	4,383	4,502	6,411	6,749	10,804	37,986명

청소년이 변화를 만든다.

「공정무역교실」은 청소년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에 공감하고 자발적인 실천을 고민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점차 개인화, 파편화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무엇보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로 떠올랐다. 청소년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이다.

비록 일상생활의 작은 실천일지라도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 크기가 아닌 가치의 확산이다. 아름다운커피는 청소년들이 「공정무역교실」을 통해 주변의 작은 이야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서동욱 학생은 학교에서 처음 공정무역을 접한 이후 청소년연합동아리 '그린나래'에서 활동하며 선배들과 함께 7년째 공정무역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캠페인 활동을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가는 원동력은 가치 확산,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해온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이 지겹지 않은지 묻곤 해요. 하지만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캠페인 활동을 하다 보면 아직 공정무역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께 그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면서도 캠페인을 지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건 혼자서 아닌, 함께 협력하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 서울미술고등학교 1학년 서동욱 학생-

이론학습과 실습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공정무역교실」은 이론과 사례를 통해 공정무역을 접하는 학습교실,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실행해보는 실천교실,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나누는 발표회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교실

공정무역 교육과 활동
강사 수업 중심



실천교실

공정무역 캠페인 기획
자발적 참여 중심



발표회

청소년들 간의 교류와 소통
캠페인 활동 정리 및 공유

공정무역에 대한 이론과 사례가 궁금한 선생님, 학부모, 청소년들은 공정무역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학교 혹은 동아리의 요청에 따라 교육을 진행할 공정무역 강사단이 파견된다.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실천교실에 참여한다. 실천교실은 청소년이 공정무역 캠페인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평균 100여회가 진행되고 있다. 실천교실의 특징은 자율성으로 아름다운커피는 캠페인 기획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매년 11월 2주 토요일에는 공정무역 캠페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모여 1년간 진행한 캠페인의 성과를 나누는 「공정무역교실」발표회가 열린다. 매년 참여 학교 및 동아리의 수는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제7회 「공정무역교실」발표회에는 18개교 200여명의 청소년이 함께했다.

‘공감’과 ‘실천’ 중심의 교육

이미 요즘 청소년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난민문제, 분쟁과 평화 등 여러 주제들로 세계시민교육을 접하고, 공정무역의 개념도 배운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시민의식은 글만으로 함양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통한 공감과 이를 실천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공정무역을 통해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교과서 밖 실제 사례를 궁금해 한다. 물론 공정무역의 정의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름다운커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동안 비슷한 또래의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실천해왔고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공정무역교실」을 통해 전하는데 있다.

공정무역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하고 실천해볼 수 있는 훌륭한 세계시민교육 소재다. 실제로 「공정무역교실」의 학습교실을 통해 공정무역을 접한 학생 다수가 자발적으로 캠페인 활동에 나선다. 이론과 체험, 공감과 실천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내재화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때로는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학생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여했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찾아보거나 부모님, 친구들에게 추천하면서 자신의 작은 실천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공정무역교실」의 지역 접근성, 세대적 한계 극복은 과제

올해로 8년차를 맞은 프로그램이지만 「공정무역교실」의 실행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권이 80% 이상으로 지역의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정무역교실」의 학습교실을 통해 공정무역을 접한 학생 다수가 자발적으로 캠페인 활동에 나선다. 활동확산을 위해서는 공정무역 강사단이 전국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시점이다.

두 번째, 「공정무역교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공정무역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현재의 「공정무역교실」 프로그램은 청소년 이후의 세대와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2018년 대전대에서 개최한 「대학생 공정무역 포럼」에서는 대학생 대상 공정무역 프로그램의 부재가 공정무역 참여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공정무역교실」의 지역 접근성, 세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름다운커피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고민 중이다.

- 1)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화상교육 진행
- 2) 「공정무역교실」의 지역파트너 발굴
- 3) 「공정무역교실」의 참여대상 확대

디지털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화상교육 진행은 서울, 경기권외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오프라인의 접촉은 지역파트너 발굴로 해결이 가능하다. 공정무역은 커뮤니티 운동으로 해외에서는 지역단위의 공정무역 도시운동이 활발하다.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도시는 런던 등을 비롯해 3,000여 곳에 달한다. 해외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화성시는 현재 공정무역도시로 지역 활동가들의 공정무역 참여가 활발하다. 지역 활동가가 운영하는 '페어라이프센터'는 공정무역 강사단을 양성해 화성 내에서 공정무역 교육을 진행하고 캠페인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의식 내재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정무역교실」에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운 연령대인 대학생 버전의 「공정무역교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공정무역교실」의 전 세대화도 가능하리라.




「공정무역교실」은 청소년들의 사고 자체를 넓혀 줄 수 있는 소재다. 물론 청소년 교육인 만큼 맹목적으로 「공정무역교실」의 장점만 받아들일 수 있는 허점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정무역교실」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직면하게 될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다양한 체험과 실천프로그램을 접한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베풀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해본다.

V . 2019 ESD 신규인증프로젝트 소개

2019년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소개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바다나눔》
2. 군산시청 - 《아동친화도시 군산의 맘껏광장 프로젝트》
3. 당진시청,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와 작은 워크숍》
4.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초록별을 만드는 착한 디자인 Project》
5.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 《산울림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6. 상명고등학교 - 《상명 공정여행학교 - 여행을 통한 배움, 나눔, 배려 교육》
7.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창의공작소 - 《생태수학과 지역 활동》
8. 오산시 - 《시민이 직접 만드는 “학습살롱”》
9. 전주시청 -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
10. 한국연구재단 - 《금요일에 과학터치》
11.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 “바다 JobGo”》

프로젝트명	바다나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small>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small>	
주 제	해양생태계	불평등 감소
수 행 기 간	2016년 7월 - 현재(3년 초과)	
교 육 대 상	초·중·고등학생	
활 동 지 역	충청남도	
세부 내용	<p>바다나눔은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지역 청소년 등)이 해양생물다양성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그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 참가자들은 전시관 관람, 교육 참여, 송림갯벌 관찰 등 해양생물자원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음.</p> <p>교육대상의 범위가 초·중·고 학생으로 다양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제약도 있어 프로그램을 획일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은 참가자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기획함. 특히 청소년의 경우, 미래해양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생물학자 체험을 진행함.</p>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p>바다나눔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 청소년에게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교육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함. 또한, 바다나눔은 해양생물다양성과 지구온난화·바다사막화로 황폐해지고 있는 해양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다채로운 오감체험, 메이커 활동, 과학적 실험 등 학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운영을 통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더 나아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함.</p>	



프로젝트명 아동친화도시 군산의 맘껏광장 프로젝트



주 제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수 행 기 간	2017년 9월 - 현재(2년 초과)		
교 육 대 상	유아, 초·중·고등학생		
활 동 지 역	전라북도		

세부 내용

군산시는 2016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결정시 아동의 의견존중과, 제31조 아동의 충분히 쉬고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맘껏광장을 조성함. 설계 과정에서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의회의 공식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추진됨. 워크숍을 통해 광장 설계의 핵심테마로 '표현할 권리'를 설정하고, 기존 공원을 재구성하여 자기표현과 실현을 의미하는 거울 설치, 토론·프리마켓 등 청소년 교류를 위한 카페테리아 설치, 아동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군산 역사의 길 조성, 연령대 별 휴식과 놀이가 가능한 다양한 조경 및 조형 쉼터 등을 조성함.

군산시(아동청소년과)에서는 기본적인 운영만 지원하며, 청소년수련관의 지원 하에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광장을 운영함. 현재 청소년 운영위원회(고등학생 8명)가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결정함..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환경) 광장 조성 과정에서 본래의 공원의 생태적,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함. 광장설계를 위한 설문조사 및 면담과정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담배연기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들자는 요구를 반영하여 안내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경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토론과 학습의 마당으로서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아이들이나 빈곤층의 아이들을 포함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광장 운영방안에 있어 중요하게 다룸.

(사회문화) 맘껏광장은 민주시민교육과 연결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서, 그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회주체로 인정하며, 이를 시의 정치인을 포함한 성인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함. 광장의 벽면과 바닥에 군산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함.



프로젝트명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와 작은 워크숍



주 제	빈곤 종식	양질의 교육	성평등	불평등 감소	해양 생태계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수 행 기 간	2016년 1월 - 현재(3년 초과)				
교 육 대 상	유아, 초등학생, 대학생, 마을 주민, 일반 성인				
활 동 지 역	충청남도				

세부 내용

당진시에서 추진하는 시민학교와 워크숍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역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 사회 조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함. 이들 시민들은 자발적 참여와 주도로 지속가능발전 및 지역환경 관련 현안을 의제로 제시함.


- 1)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SD시민학교):** 민간 거버넌스(당진시, 지속협) 주도로 SDGs와 연계된 주제를 선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 2) **지속가능발전 작은 워크숍:** 경제,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학습 주제, 강사 등을 계획 및 선정하여 각 분과별 소규모 교육워크숍 진행
- 3) **논배미 시민학교:**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태해설 교육 및 체험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생태해설강사 양성

최초에는 환경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논배미 시민학교를 진행하였지만 이를 확대·발전시켜 지역경제, 도시계획, 인권, 문화, 공동체, 에너지, 자연환경 등 SDGs 전반에 걸친 주제를 선정하고 의제들을 발굴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작은 워크숍과 SD시민학교를 진행함.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 **지속가능발전 작은 워크숍, 시민학교**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5개 분과 별로 SDGs에 해당되는 주제 중 학습 및 토론을 원하는 주제를 선택함. 5개 분과별 학습 주제와 공통 주제를 선택하여 교육 프로그램 구성하며, 복수의 SDGs를 함께 추구하고자 함.
- **논배미 시민학교**
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생태계에 대한 현장 생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최우선 가치가 환경보전임을 주민과 교육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함.



프로젝트명	초록별을 만드는 착한 디자인 Project 		
주 제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기후변화 대응
수 행 기 간	2017년 4월 - 현재(2년 초과)		
교 육 대 상	초등학생		
활 동 지 역	경기도		
세 부 내 용	<p>초록별을 만드는 착한 디자인 Project는 UN의 SDGs(지속가능개발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의 문제를 제안, 학습자 스스로 고민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메이커교육(Maker education)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며 내 주변에 관심을 갖고 타인, 문화, 환경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음.</p>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이해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 • 환경문제가 타국의 일이 아닌 나와 가족, 친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유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내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코디자인 머그컵 제작 - 박물관 앞 쓰레기들을 치울 수 있는 에코디자인 쓰레기통을 제작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의 약속,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과의 공생 관계 중요성 및 자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함. • 이웃을 생각하는 착한 디자인(적정기술)을 배우고 직접 개발해보며 나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이웃, 자연을 생각하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함.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쓰이고 버려지는 다양한 자원으로 인해 나와 이웃, 지구에 주는 영향과 피해를 알아보고,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과 활용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구를 사용함. 		



프로젝트명 산울림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주 제	양질의 교육	육상 생태계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수 행 기 간	2013년 4월 - 현재(6년 초과)			
교 육 대 상	중·고등학생, 대학생, 마을주민			
활 동 지 역	경기도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실천과제로 삼아 활동함.

세부 내용

활동 별 현안에 대한 배경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마을이해교육과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을 진행하고, 문제인식(현안 발굴)→사례 분석→대안 찾기→실행하기→확산하기 총 5단계에 걸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실행하고 평가까지의 단계별 지속성을 담보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013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2014년 ‘깨끗한 마을 만들기’, 2015년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2016년 ‘즐거운 마을 만들기’, 2017년 ‘친절한 마을 만들기’, 2018년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와 같이 연도별 중점 현안을 주제로 선정하여 유해환경개선, 거리정화, 구성원 간 소통확대, 거리문화 조성 등 세부 활동들을 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함.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SDG 4) 청소년 마을기획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은 학업수준이나 성별,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역곡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함.

(SDG 7) 개선실천 활동 진행 시, 지역사회와 환경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올바른 에너지 사용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함.

(SDG 11) 지역 내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에 기여함.

(SDG 15) 지역 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은 실천부터 지역 주민들이 환경정화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프로젝트명	상명 공정여행학교-여행을 통한 배움, 나눔, 배려 교육			
주 제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수 행 기 간	2012년 7월 - 현재(7년 초과)			
교 육 대 상	고등학생			
활 동 지 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세부 내용	<p>상명고등학교의 공정여행 프로그램은 “여행지에 대해 더 알고 떠나(배움), 여행을 통해 여행자와 현지인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를 맺고(나눔),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배려) 테마가 있는 여행”으로 정의됨. 물질만능주의, 배려가 사라져가는 경쟁 일색의 입시현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쉼터와 배움터를 제공하고자 함.</p> <p>선발된 학생 40명은 일회용품 사용 자제, 환경 보호 등 현지 환경을 위한 교육과 함께, 여행지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한 조사 및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여행하게 될 지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 사제동행 여행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중 약 3일여 간 진행됨. 장거리 트래킹과 농활 등 땀과 노동의 소중함과 협동을 통한 성취감을 깨달음과 동시에 팀원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지적 영역을 채울 수 있음.</p>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p>7년간 공정여행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SDG 4. 양질의 교육,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충족시킴. 최근 실시된 2018 공정여행은 그 외에도 다양한 목표들과 접점이 있음.</p> <p>주요 활동장소인 ‘외암강당 농촌뜨락’은 지역주민의 출자로 설립된 협동조합 시설로서(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역발전 시설을 통해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을 자체 해결하며(SDG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의 운영을 맡아 지역 내 일자리 마련과 마을경제 순환을 이루어냄(SDG 8.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여행 종료 후, ‘공정여행 보틀’을 제작하여, 참가자(학생, 교사)와 ‘뜨락’ 협동조합에 배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의 생활화를 꾀함(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프로젝트 참가 학생들은 이 모든 것들을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함(SDG 4. 양질의 교육).</p>			



프로젝트명

생태수학과 지역 활동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Seoul 50 Plus Southern Campus

주 제	양질의 교육	불평등 감소
수 행 기 간	2018년 1월 - 현재(1년 초과)	
교 육 대 상	유아, 초등학생, 일반 성인	
활 동 지 역	서울특별시	

세부 내용

생태수학과 지역활동은 서울시50플러스 세대(50-64세)를 대상으로 '*생태수학강사 입문'과정을 개설하여 수료한 수강생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유·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임.

지역거점센터 (남부캠퍼스)와 교육 컨텐츠(창의공작소)의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교사를 배출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세대를 막론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사회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新중년 세대들에게 취업 및 창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지속가능 발전과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강사로 양성함. 또한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과 저소득층 교육을 통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끊고 빈곤해소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에 기여함.

*생태수학 프로그램: 자연에서 수학적 원리를 배우는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생태수학에서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는 다양성과 협동&공존임. 관찰과 체험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협동과 공존의 가치를 배움.

자연을 통해 쉽고 친근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수학'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양질의 학습권과 공평한 교육접근성 보장하고, 교육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에 앞장 섬.




프로젝트명

시민이 직접 만드는 “학습살롱”




주 제	건강과 복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양질의 교육 산업, 혁신과 인프라	성평등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글로벌 파트너십
수 행 기 간	2017년 1월 - 현재(2년 초과)			
교 육 대 상	일반 성인			
활 동 지 역	경기도			
세부 내용	<p>학습살롱은 시민들이 배우고 싶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내용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프로젝트임.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강좌를 기획하는 Top-down 방식이 아닌 시민 활동가인 학습살롱 플래너들이 학습살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Bottom-up 방식으로, 학습살롱 플래너는 자발적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함.</p> <p>학습살롱의 인문교양 및 시민참여교육 강좌들을 통해 오산 시민들은 개인에 대한 성찰 뿐만 아니라 공존하여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 인류와 자연 간의 호혜 관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배움으로써 인간과 세계(사회)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됨.</p> <p>학습살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오산시 곳곳의 유휴공간들을 학습공간으로 지정한 징검다리교실들로, 시민들의 생활권 10분 거리에 위치한 학습 장소에서 다양한 학습살롱 프로그램들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의 접근성 확보가 가능함.</p>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p>학습살롱은 철학, 문학, 역사·문화 등의 인문교양교육 및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시민참여교육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학습 주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함.</p> <p>학습살롱 플래너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크게 관심 없었던 일반 시민들이 학습살롱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지역사회 및 시민들의 학습 요구에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p> <p>학습 소외계층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및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들의 프로그램(남성만 신청이 가능하거나 남성 신청자를 우대, 가족(아빠)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주제, 직장인들의 관심을 반영한 기획을 통해 모두를 위한 공평한 학습기회를 보장함.</p>			




프로젝트명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 	
주 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성평등
수 행 기 간	2014년 5월 - 현재(5년 초과)	
교 육 대 상	성매매 여성, 성매매 업주, 대학생, 마을주민, 공무원, 일반성인	
활 동 지 역	전라북도	
세부 내용	<p>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는 60년 가까이 성매매 집결지로 자리했던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 문화, 예술, 인권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임. 공권력에 의한 강제단속이나 집단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 참여에 기반한 문화예술 재생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참신성, 지속가능성, 협치성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2015년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함.</p> <p>그 결과, 2014년 기준 49개소의 성매매 업소가 2018년 21개소로 감소하였으며, 전주시에서는 성매매 업종전환에 따른 여성자활 및 자립을 위해 2017년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성매매업 종사자 현장 상담소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선미촌 기능전환과 여성인권 및 자활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지로 2018년 주민중심의 서노송예술촌 리빙랩을 운영함.</p>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p>(자발성에 기초한 민관 거버넌스)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자발적 문제제기와 시민단체, 행정의 연대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성매매집결지 재생 사례를 일구어가고 있음.</p> <p>(사업방식의 지속가능성) 도심의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점진적 기능전환을 하고자 함.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공간의 서사를 이해하고 지역, 공간, 사람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의 복합프로젝트를 구상함.</p> <p>(지속적인 여성인권 및 자활교육) 민간단체의 주도로 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민간단체와 전문가, 행정의 통합지원체계를 갖추. 특히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으로 여성인권과 자활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p>	



프로젝트명		금요일에 과학터치					
주 제	빈곤 종식	기아해결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		
	산업, 혁신과 인프라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글로벌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수행기간	2007년 2월 - 현재(12년 초과)						
교육대상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교사, 마을주민, 공무원, 일반 성인, 노인						
활동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부내용	<p>「금요일에 과학터치」는 과학강연 형태로 실시되는 한국연구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임. 세부적으로 “금요일에 과학터치”, “토요과학 강연회”, “특별 강연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자들이 교육기부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외 지역과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도서지역 등 학생, 보육시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별 강연을 개최하고, 이동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강연 동영상 을 게재함.</p> <p>12년간(2007~2018) 26만 명 이상이 참여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 문화의 대중화,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연구자와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의 기능 등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함.</p>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p>「금요일에 과학터치」에서 이루어지는 강연은 SDGs 17가지 주제 중, 16가지 이상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환경 및 에너지, 생물다양성, 지역개발 및 거버넌스,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5가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영역을 직·간접적으로 다룸.</p> <p>주요 참석계층인 청소년들의 과학적 해석력을 증진하고 단순 과학기술 지식 전달에서 나아가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역량을 일정 수준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함.</p>						



프로젝트명	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바다JobGo) 		
주 제	양질의 교육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수 행 기 간	2010년 12월 - 현재(8년 초과)		
교 육 대 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주부		
활 동 지 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도, 제주도		
세부 내용	<p>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바다JobGo)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서 교육기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자체 자원(인적·물적)을 투입하여 미래세대(초·중·고생, 교육소외 계층), 학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양환경 인식 증진 및 해양환경 진로 교육임.</p> <p>① 해양환경 체험교육: 청소년 대상 해양환경 보전인식 증진 교육 ② 프로젝트: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 해양진로콘서트, 해양진로캠프 등으로 구성</p> <p>11년 해양환경 교육기부 시작 이래로 '18년까지 106,729명의 청소년에게 교육을 제공함.</p>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p>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은 본질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이므로, 이러한 해양환경교육의 실시 및 확대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임.</p> <p>다양한 교안 및 교보재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 미래세대의 관심 및 인식 증진을 위한 시민교육, 전국범위 교육이라는 점에서 SDG4와 연계됨. 교육과정에 장애인 대상 해양환경 챌린지교육을 운영하고 기타 교육 소외 계층(읍면소재, 도서산간, 장애우,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SDG10와 연결됨. 교과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 해양쓰레기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SDG13 및 SDG14에 직접적으로 기여함.</p>		



[부록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SDG4-교육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SDG4-교육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2030년)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던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2015년)의 후속사업입니다.

2015년 제70차 유엔 정상회담에서 유엔은 정부 및 시민사회가 더불어 노력해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들 목표는 세계의 빈곤 증식과 평화 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힘써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SDGs는 MDGs가 추구하던 빈곤 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 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들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SDGs는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라는 범주를 추가해, MDGs에서 다루지 않던 폭력이나 분쟁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목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SDG4)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2017/8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 4백만 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SDG4의 취지이며, 이를 위해 7개 성과 목표와 3개 이행 수단을 정했습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e global education goal by 2030:
10 targets to be reached

The 10 targe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encompass many different aspects of education. Seven targets are of expected outcomes and three are means of achieving these targets

Education
2030

SDG4의 성과 목표 및 이행 수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목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이행 수단		4.a.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부록2]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담당자 연락처

유네스코 ESD공식프로젝트 담당자 주요 연락처

2011년도			
기관명	프로젝트명	담당자	이메일
(사)기후변화에너지 대안센터	2011 낙동강 생태문화와 함께하는 에너지가족캠프 "곰 세 마리네" 1박 2일	차연근	sunway@sunway.or.kr
북스인터내셔널	북스인터내셔널 그림책 나눔 프로젝트	이현정	contact@booksinternational.net
이화어린이연구원	푸른 별 지킴이	김언경, 김희진	educare@ewha.ac.kr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	국립공원 시민대학을 통한 지역사회 리더 양성	김인호	kiminho76@knps.or.kr
(사)메디피스	국제개발교육 Academy	김향지	hyangji.kim@medipeace.org medipeace@medipeace.org
재단법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통영청소년 꿈 찾기 '브릿지 투 더 월드 (Bridge to the World)'	박수연	rceorg@gmail.com
alt.lab (구 이웃)	NGO의 지속가능성 역량 개발 프로젝트: 조직 실행 및 이해관계자 보고	이호정	hyoj@altlab.kr
호이(HoE)	STIC (Short Term Intensive Course for school teachers)	박자연	hoe@hoe.or.kr
덕성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덕성 지구환경살림이 프로젝트	이금구	yaapp@hanmail.net
에딧더월드 (Edit the World)	북스인터내셔널 (Books International)	김정태	story.wins@gmail.com
마포지역자활센터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강화 프로젝트	박주영	jp0705@nate.com
울산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회	ESD 인식제고를 위한 ESD창의인성교실	장소영	jang_soyoung@hotmail.com

2012년도

기관명	프로젝트명	담당자	이메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사무소	국립공원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계룡산 국립공원 시민대학	이상우	woondong760@gmail.com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대학생의 착한소비 윤리적소비 실천교육	천경희 교수	ckh0336@hanmail.net ckh0336@catholic.ac.kr
월드투게더	월드투게더 세계시민학교	김유미	youme.kim@worldtogether.or.kr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	월악산 국립공원 대학생레인저 (Univeranger)아카데미 과정을 통한 차세대 그린리더 양성	신경현	ranger_82@knps.or.kr
충북자연사랑 유아교육연구회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원프로젝 트	김영수 부회장	yshamil@hanmail.net
서울특별시금천구청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이현정(주무관)	jp0705@nate.com
서울신곡초등학교	도시 디자인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젝트	강주희	yaapp@hanmail.net

2013년도

기관명	프로젝트명	담당자	이메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백운산자연휴양림	숲속공예교실	김보영	tkfkddjqtms@korea.kr
ICISTS	ICISTS	김영무 부회장	executive@icists.org
아름다운 커피	공정무역교실	이유정 간사	leeyj@bcoffee.org
푸른숲광주21협의회	도시숲 미래, 앞산뒤산 네트워크	윤희철	greengj@hanmail.net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수성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안현숙 주무관	llepro@korea.kr
사단법인 호이(HoE)	차세대글로벌리더십프로젝트 '희망의 비, 헤르켄토'	오유정	gced@hopeisedu.org

2014년도

기관명	프로젝트명	담당자	이메일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광덕산 환경 프로젝트	김문옥 사무차장	moonok92@kfem.or.kr
풀뿌리 환경센터	시화호 환경학교	손지연 부장	arou1108@naver.com
안산시 건축사회	안산 지속가능 녹색건축 컨퍼런스	장은정 실장	asarch@chol.com
아이 브릿지	글로벌그린아카데미	기예지 연구원	ibridge.pr@gmail.com
부산 환경교육센터	부산 녹색 살림 주부9단	정호선 사무국장	jhs@kfem.or.kr
경기도지속가능발전 협의회(구: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우리동네 그린맵	김선주 간사	ggag@hanmail.net

2015년도

기관명	프로젝트명	담당자	이메일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	가야산 국립공원 시민대학 (주민아카데미)	도종경	euonymus11@knps.or.kr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이상화 정명국 주무관	sang0401@korea.kr
시흥시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한성근	okhan2k@korea.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내일을 꿈꾸는 사다리 '에너지 투모로우'	양덕환	ydh2001@energy.or.kr
우양재단	우양 평화교육	김솔	soll.kim@wooyang.org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성인을 위한 기초 문해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한명희 사무국장	930-5909@hanmail.net
노을공원 시민모임	평화의 씨앗	김성란 운영위원	semodepaco@naver.com

2016년도			
기관명	프로젝트명	담당자	이메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	최은혜 주임	choieh159@knps.or.kr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MBC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무등산 시민대학)	최진희	peepjin@knps.or.kr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미래세대 에너지 진로·체험교육	장지은 차장	jerry@energy.or.kr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체험교육프로그램	임종태	jt03@nnibr.re.kr
베타니아특수어린이집	숲을 품은 아이들	김옥분(원장) 이충경 부장교사 (유아 숲지도사)	bethany.or.kr@daum.net mirakleguy23@daum.net
제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이순희	jckfem@hanmail.net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 미래세대 에너지 진로교육	문성환 과장	msh@energy.or.kr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엄영철	wjagenda21@hanmail.net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치악산 시민대학	이민주 주임	1212ju@knps.or.kr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GESD 교원연구회	오진희	greengj@hanmail.net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지속가능발전아카데미	손주영 국장	asag21@hanmail.net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지속가능한 녹색소비교육	이종택	wilson1897@naver.com
한양대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초등학생을 위한 글로벌 역량으로서의 다문화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최두열	mt_culture@naver.com doonsm@naver.com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 챌린지 프로그램	윤수진 대리	ami2000k@koem.or.kr

2017년도

기관명	프로젝트명	담당자	이메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교육 소외 계층 및 지역사회를 위한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임종태	jt03@nnibr.re.kr
공유인	마을 생태계 디자이너 교육기획 프로그램	문주영 대표	bontemaru@naver.com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비밀의 화원	김희현 대리	whitetuna@kywa.or.kr
창의공작소	사회연대경제 & 환경교육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송미숙 대표	99somi@daum.net
시흥시	시흥형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한성근	okhan2k@korea.kr
빛가람지킴이	애들아~ 같이 놀자!	장연희	bitgaramjikimee@naver.com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영동·옥천·보은 해피투게더 어울림학교교육	조기연 본부장	2015happy-boy@daum.net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 다양성 지킴이 양성	송영은 주무관	musesong@korea.kr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지리산 국립공원 50년! 미래로 잇는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이효경	hyo@knps.or.kr
콩세계과학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콩 체험 프로그램	한지원	hju0711@korea.kr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태안해안 국립공원 시민대학	이석주 주임	solpyo@knps.or.kr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 환경 이동교실 '아라아띠'	윤수진 대리	ami2000k@koem.or.kr

2018년도

기관명	프로젝트명	담당자	이메일
도봉구	기후변화대응교육	손광순 주무관	sks1001@dobong.go.kr
개운중학교	내가 그린 연구소	나애경	nic7809@chol.com
도봉구	마을 방과후활동	이명승 주무관	lms321@dobong.go.kr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미추홀&피지 교육평등 프로젝트	박성한 교사	sunghan@snu.ac.kr
부산광역시, (재)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 평생학습빌리지 사업	박수진 주무관 / 방정은 연구원	ferelin@korea.kr / jungen68@h anmail.net / farbe90@hanmail. net
광명시	시민주도 평생학습시스템 느슨한학교	정효정 주무관	yokgok1@korea.kr
시흥시	시흥형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윤재희 주무관	yjh8031@korea.kr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지리산 스토리텔러 기초교육	강정순	kang6511@knps.or.kr
부산대학교 CAMPUS Asia 건축학사업단	캠퍼스아시아 SUAE Asia Program	김윤정 연구교수	plusblues@gmail.com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 부산기후환경네트워크	클린에너지학교	(에너지공단) 이건우 차장	keonwoo@energy.or.kr
태안군청	태안형 행복학습 자치학교	김미란 주무관	canvas423@korea.kr

2019년도			
기관명	프로젝트명	담당자	이메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바다나눔	권이영 대리	kwonuu@mabik.re.kr
군산시청	아동친화도시 군산의 맘껏광장 프로젝트	노창식 아동정책계장	kamo2000@korea.kr
당진시청,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와 작 은 워크숍	정민수 주무관, 이동준 사무국장	kentlee@korea.kr, djagenda21@hanmail.net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초록별을 만드는 착한 디자인 Project	이정원 학예연구사	toyto@korea.kr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산울림 청소년 마을기획단 “마중물”	강성아 팀장	echoyouth@hanmail.net
상명고등학교	상명 공정여행학교 - 여행을 통한 배움, 나눔, 배려 교육	김현모 교사	turtle90@sen.go.kr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창 의공작소	생태수학과 지역 활동	김진이 PM	appleeyes2@seoul50plus.or.kr
오산시청	시민이 직접 만드는 “학습살롱”	이상국 평생교육과장	molhe@korea.kr
전주시청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	구지연 주무관	scrubs99@korea.kr
한국연구재단	금요일에 과학터치	김준섭 연구원	jands90@nrf.re.kr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 (바다JobGo)	나희진 과장	hjna@koem.or.kr

펴낸날 | 2019년 9월 23일

펴낸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 김광호

편집 | 조우진, 오혜재, 이선경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 02-6958-4162

팩스 | 02-6958-4162

전자우편 | esd@unesco.or.kr

한위간행물 등록번호 | ED/2019/DI/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 종식과 환경 보호,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이행해야 할 17개의 목표입니다.

이들 목표 가운데 4번 목표(SDG4)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위해 수립되었습니다.